

이름: <u>김재홍</u>	이메일:
나이: <u>10살 3학년</u> 직업: <u>학생</u>	거주지역: <u>아산베너딩아파트: 자기 1차</u>
본 행사 참여경험 (우측 해당란에 √ 체크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2013 <input type="checkbox"/> 2014 <input type="checkbox"/> 2015 <input type="checkbox"/> 2016 <input type="checkbox"/> 처음 참여

5월 20일 토요일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아침부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야구를 했다. 신정호에서 오빠가 클라이밍을 한다. 오빠를 2시간이 딱기 다녀야 되는데 어떤 아저씨가 실레에서는 다치지만 안으면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규현이랑 같이 놀았다. 클라이밍이 끝나면 지인이었나 ^{ㅋㅋ} 관야~구장을 간다. 나의 장래희망이 이루어질수있는 곳이다. 우리는 불펜투수가 연습하는 곳에서 야구를 보았다. 엄청 웃긴 것은 삼성이랑 하는데 김승연이라는 투수가 문이 잠겼는데 본인 동안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 황수범이라는 투수가 문을 열어주었다. 안 좋은 것은 만루 상황인데 하필 루사리오를 테드블로 마쳐가 지고 그다음 타자가 양성우인데 힘아수집게 8:9로 졌다. 그 끝지 삼성한테 3연패를 당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 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hmarchives.org/omeka/512diary/index.html>